4부 성경의 속성

성경론 17편 누구나 읽고 알 수 있나 · 필요성과 명료성

신앙고백서 1.1(끝부분) · 1.7 · 프레임 30장 성경의 필요성(개혁을 위한 제안 포함) · 프레임 31장 성경의 포괄성 · 프레임 29장 성경의 명료성 · 오웬 4장 성경 안에 있는 신적 기원의 증거(자증하는 빛) ※ 프레임 장 번호는 앞뒤 장에서 추정한 것 · 신앙고백서 1장 1.1, 1.7

> ❓ **신학을 안 배운 내가 성경을 읽어도 될까? 읽으면 알아듣기는 할까?**

🧭 흐름 한눈에

신앙고백서 1.1은 자연이 하나님을 핑계 못 할 만큼 보여 주지만 구원의 길은 알려 주지 않는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글로 남기신 성경이 '가장 필요한' 것이 됩니다. 프레임은 여기에 두 가지를 더합니다. 언약과 구원이 본래 말로 오기 때문에 “성경 없이는 그리스도도 없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삶 전체에 닿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모두에게 필요하다면 다음 질문이 따라옵니다. 그 성경을 보통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가? 신앙고백서 1.7은 정직하게 답합니다. 모든 구절이 똑같이 쉽지는 않지만, 구원에 필요한 것은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보통의 수단을 바르게 쓰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웬의 '스스로 드러나는 빛'과 프레임의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소통', 그리고 '네 입과 마음에 가까운 말씀'(신명기 30장)이 이 답을 받쳐 줍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명료성은 학력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문제입니다.

📜 절별 정리

📜 1. 자연은 핑계를 없애지만 길은 알려 주지 않는다 (신앙고백서 1.1)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때에 여러 방식으로 말씀하셨고, 그 계시 전체를 글로 남기셨습니다. 진리를 지키고 퍼뜨리며, 교회를 굳게 세우고 위로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꿈이나 환상이나 선지자를 통해 직접 뜻을 알리시던 이전 방식이 그친 지금, 성경은 '가장 필요한'(most necessary) 것이 됩니다. 이 편의 질문에 비추면, 성경은 전공자의 교재가 아니라 구원의 길을 아는 통로이므로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1. 자연은 핑계 못 할 만큼 하나님을 보여 준다
2. 그러나 구원의 길은 자연에 없다
3.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것을 글로 남기셨다
4. 이전 방식은 그쳤고, 그래서 성경이 가장 필요하다
5. '필요하다'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뜻이다

> **로마서 1:19-20**
> ★ 신앙고백서 1.1 · 프레임 명료성(1:20)이 함께 듦. 자연계시는 분명해서 핑계할 수 없다
>
> 19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 **고린도전서 1:21**
>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자연계시의 한계
>
>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 **히브리서 1:1-2**
> “여러 때에 여러 방식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심
>
> 1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로마서 15:4

기록된 말씀이 교훈과 위로와 소망을 준다. 기록의 목적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마태복음 4:4

★ 신앙고백서 1.1 · 프레임 필요성·명료성·포괄성이 모두 듦.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로 사탄에 맞서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기억할 문장(1.1 우리말 번역): “그것들만으로는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한 지식을 주지 못한다.” / “그래서 성경은 가장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뜻을 계시하시던 이전 방식들은 이제 그쳤기 때문이다.”

📜 2. 떡보다 말씀, 말로 맺어진 관계 (프레임 30장 성경의 필요성)

프레임은 신앙고백서 1.1 전문을 인용하며, 다른 계시로는 모자라다는 점을 성경이 필요한 고전적 근거로 받습니다. 그리고 근거를 더 보탭니다. 첫째 근거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관계의 내용을 정하십니다. 성경은 “내 말을 듣는 것”과 “내 언약을 지키는 것”을 나란히 쓰고, 신명기 4:13은 십계명을 아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언약은 본래 말로 맺어진 관계이고, 기록된 언약이 없으면 언약의 주님도 없습니다. 둘째 근거는 구원입니다. 구원의 근거는 십자가와 부활이지만, 그 의미는 하나님만 말씀하실 수 있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예수님은 책을 쓰지 않으셨으므로 오늘 그분의 말씀은 성경에만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모든' 말씀이라고 하셨으니 성경 일부가 아니라 전체가 우리의

2. 언약은 말로 맺어진 관계다
3.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에만 있다
4. 구원은 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온다
5. 성경 '전체'가 영적 양식이다

> **신명기 8:3**
> ★ 프레임 필요성·명료성·포괄성 세 장이 모두 듦. 사람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 **마태복음 4:4**
> ★ (1절과 같음) 예수님이 신명기 8:3을 인용하심. '모든 말씀'이 성경 전체를 가리킨다는 근거
>
>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 **출애굽기 19:5**
> “내 말을 잘 듣고”와 “내 언약을 지키면”이 나란히 쓰임
>
>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 **신명기 4:13**
> 십계명이 곧 언약이다. 언약이 말로 맺어진 관계라는 핵심 구절
>
>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 **요한복음 6:68**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로마서 10:17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경이 없이는 주님도 없다. 성경이 없이는 그리스도도 없다." — 프레임

📜 3. 그 말씀은 삶 전체에 닿는다 (프레임 31장 성경의 포괄성)

프레임은 필요성 바로 다음에 '포괄성'을 놓습니다. 성경이 삶의 일부가 아니라 모든 영역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는 '종교 칸'이나 '구원 문제'에 갇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문화명령(창세기 1:28)으로 사람의 모든 일을 다스리셨습니다. 쉐마(신명기 6:4-5)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런 사랑은 일과 쉼, 가족과 직업에서 "여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를 묻게 만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그 '모든 말씀'과 '모든 것'을 찾으려면 성경으로 가야 합니다. 이 편의 질문으로 옮기면 이렇습니다(이 연결은 이 편의 정리입니다). 성경이 평일의 삶 전체에 닿는 책이라면, 그 평일을 사는 비전공 청년이야말로 직접 읽어야 할 사람입니다.

1. 성경의 권위는 종교 칸에 갇히지 않는다
2. 문화명령과 쉐마: 삶 전체가 하나님 앞이다
3. 그리스도가 '분부한 모든 것'은 성경에 있다
4. 신약에 세부 조항이 적은 건 성숙한 아들이라서다
5. 말씀이 포괄적이니 읽는 사람도 모두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신명기 6:4-5

쉐마. 온 존재를 다한 사랑은 삶의 모든 영역으로 번진다

4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5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28:18-20

모든 권세를 받으신 그리스도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심

18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갈라디아서 4:1-7

신약에 세부 법이 적은 이유는 어린아이에서 아들로 자랐기 때문이다

1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2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3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 하였더니 4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5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6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

고린도전서 10:31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 4. 개혁을 위한 제안: 복음은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왔다 (프레임 30장 '개혁을 위한 제안')

프레임은 필요성 장 끝에 '개혁을 위한 제안'을 붙입니다. 현대 자유주의 신학은 사람이 스스로 기준이 되는 '자율성'을 지키려고 성경이 하나님의 인격적 말씀이라는 고백을 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신다는 확신이 사라지고, 복음은 수많은 인간 이론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프레임은 '개혁'이라는 구호가 엉성한 생각과 교회 분열의 핑계가 되기 쉽다고 먼저 경계합니다. 그래도 교회사의 두 개혁을 본보기로 듭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아들이 완전히 하나님이심을, 루터는 칭의가 완전히 하나님의 일임을 인정했습니다. 오늘의 과제는 구원의 메시지가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와서 사람의 말로 분명히 전해졌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분명히 전해졌다'는 말이 다음 절의 명료성으로 넘어가는 다리가 됩니다.

1. 자유주의는 자율성 때문에 '인격적 말씀'을 버렸다
2. 그러면 복음은 인간 이론 가운데 하나가 된다
3. '개혁' 구호는 먼저 경계해야 한다
4. 아타나시우스와 루터, 그리고 오늘의 과제
5. 복음은 하나님에게서 와서 분명히 전해졌다

> **고린도전서 1:19-20**
> 십자가가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한다. 인간 지혜로는 구원의 길을 못 찾는다
>
> 19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20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 6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7 오직 은밀한 가운데
>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8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 아니하였으리라 9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10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 11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

📜 5. 모든 것이 똑같이 쉽지는 않다. 그러나 (신앙고백서 1.7)

1.7은 정직한 인정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이 똑같이 쉽지는 않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분명하지도 않습니다. 베드로도 바울의 편지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위해 알고 믿고 지켜야 할 것들은 다릅니다. 그것들은 성경 이곳저곳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서 배우지 못한 사람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보통의 수단을 바르게 쓰는 것'입니다. 읽고, 듣고, 묻고, 기도하는 평범한 길을 말합니다. 이 절은 성경이 너무 어려우니 교회의 해석만 따르라는 생각을 겨냥합니다. 동시에 대충 읽어도 다 안다는 태도도 받아 주지 않습니다.

1. 성경의 모든 구절이 똑같이 쉽진 않다
2. 구원에 필요한 것은 어딘가에 분명히 있다
3. 배우지 못한 사람도 깨달을 수 있다
4. 조건: 보통의 수단을 '바르게' 쓰기
5. 교회 독점도, 대충 읽기도 막는다

> **베드로후서 3:16**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시편 119:105

★ 신앙고백서 1.7 · 오웬 4장이 함께 듦. 말씀은 발의 등이요 길의 빛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130

★ 신앙고백서 1.7 · 오웬 4장이 함께 듦. 말씀을 열면 우둔한 사람에게도 깨달음을 준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9:7

★ 신앙고백서 1.7 · 프레임 명료성이 함께 듦. 여호와의 증거는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한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사도행전 17:11

베뢰아 사람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보통의 수단의 본보기(신앙고백서 1.10에서도 듦)

베뢰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기억할 문장(1.7 우리말 번역): “성경의 모든 내용이 그 자체로 똑같이 쉬운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분명한 것도 아니다.” / “그러나 구원을 위해 알고 믿고 지켜야 할 것들은 성경 이곳저곳에 아주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 “그래서 배운 사람뿐 아니라 배우지 못한 사람도, 보통의 수단을 바르게 쓰면 충분히 이해하게 된다.”

📜 6. 단서를 꼼꼼히: '보통의 수단'과 '구원에 필요한 것'의 범위 (프레임 29장 성경의 명료성)

프레임은 1.7을 단서를 신중하게 단 섬세한 문장으로 읽습니다. 이 고백은 평신도가 혼자 성경을 읽으면 이단으로 흐를까 봐 막던 당시 로마 교회를 겨냥합니다. 그렇다고 혼자 제멋대로 하는 성경 공부를 부추기거나 모든 평신도를 전문가로 만들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신비가 있고, 원어와 문화를 알아야 풀리는 곳도 있으니 겸손히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보통의 수단'에는 교회의 설교와 가르침,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이 들어갑니다. 다만 교회의 가르침은 무조건 동의해야 하는 결론이 아니라, 신자가 교사보다 더 깊이 자랄 수 있게 이끄는 길입니다. 범위도 정확히 해야 합니다.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를 몰라도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1.7이 말하는 것은 성인이 믿을 만한 신앙고백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이고, 성경 권위의 범위를 좁히는 말이 아닙니다. 프레임은 1.6이 성경에 제한 없는 범위를 준다고 덧붙입니다.

1. 로마 교회의 평신도 성경 금지를 겨냥한다
2. 그렇다고 '나 혼자 다 안다'도 아니다
3. 보통의 수단: 설교·가르침·기도·성령
4. 이해는 학력에 정비례하지 않는다
5. '구원에 필요한 최소'는 권위의 범위가 아니다

> **신명기 8:3**
> ★ (2절과 같음) 사람은 말씀으로 산다. 말씀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
>
>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 **시편 19:7**
> ★ (5절과 같음) 말씀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열려 있다
>
>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시편 119편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평범한 신자의 모습

시편 119장 [1]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여 [2]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3]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4]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5]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6]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

마태복음 4:4

★ (1절과 같음) 모든 사람이 말씀으로 산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 7. 빛은 증인이 필요 없다 (오웬 4장)

오웬의 4장은 본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줄 어떻게 아는가”를 다룹니다. 그래도 그가 쓴 '빛' 비유는 이 편의 질문과 정확히 맞닿습니다. 빛은 자기가 드러나는 데 필요한 일을 자기 쪽에서 다 합니다. 해가 뜨면 낮이 되었다고 증명할 증인이 필요 없고, 아이가 촛불을 들고 방에 들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위엄과 진리가 비치는 영적인 빛이고, 오웬은 그 근거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시편 119:105)과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시편 119:130)를 듭니다. 교회는 이 빛을 높이 드는 기둥입니다. 설교와 성례와 진리 안의 삶이 그 일이지만, 교회가 빛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오웬은 성경이 아이의 손을 거쳐 오든 교회의 손을 거쳐 오든 그 권위는 말씀 자체에 있다고 말합니다. 아직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책을 건네 읽게 하고, 그 다음은 말씀에 맡기라는 것이 그의 방법입니다.

1. 빛은 자기 쪽에서 드러날 일을 다 한다
2. 성경은 하나님의 위엄을 비추는 영적 빛

4. 누구 손으로 오든 권위는 말씀 자체에 있다

5. 방법: 책을 건네고 말씀에 맡긴다

> **에베소서 5:13**
>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빛은 스스로 드러난다는 원리
>
>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 **시편 119:105**
> ★ (5절과 같음) 말씀은 등불이요 빛이다
>
>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 **시편 119:130**
> ★ (5절과 같음) 말씀이 열리면 빛이 비쳐 우둔한 자를 깨우친다
>
>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 **베드로후서 1:19**
> 성경은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이다
>
>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 **디모데전서 3:15**
>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빛을 높이 들 뿐 빛을 만들지 않는다
>
>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기억할 문장(오웬 우리말 번역): “빛은 자신을 증명할 증거도 증언도 필요 없다.” / “교회는 빛을 높이 들 수 있다. 그러나 교회가 빛은 아니다.” / “아이의 손이든 교회의 손이든, 성경이 어떻게 오든 그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데서 나온다.”

📜 8. 그런데 왜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나: 빛은 눈이 아니다 (프레임 29장 · 오웬 4장)

명료하다면 왜 모두가 이해하지 못할까요? 오웬은 “빛은 눈이 아니다”라고 답합니다. 시각장애인이 해를 못 본다고 해가 해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선입견과 전통, 빛을 미워하는 욕망, 그리고 “이 세상의 신”이 눈을 가린 것이지 빛이 모자란 것이 아닙니다. 프레임은 더 깊은 층에서 답합니다. 하나님의 소통은 언제나 목적을 이루므로(이사야 55:10-11)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분명합니다. 같은 비유가 제자들에게는 나라의 비밀을 열고 바깥 사람에게는 감춘다는 점에서 명료성은 '선택적'이며,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제자들도 비유 풀이를 따로 들어야 했듯이, 신자 안에서도 이해는 자라 갑니다. 그리고 명료성은 윤리적 교리입니다. 말씀이 분명하니 몰랐다는 핑계가 통하지 않고, 많이 아는 사람에게 많이 요구하십니다(누가복음 12:47-48). 성경은 사변적 호기심을 다 채워 주지는 않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져야 할 책임을 다하기에는 언제나 충분히 분명합니다.

1. 못 보는 것은 빛이 아니라 눈의 문제(오웬)
2. 하나님의 소통은 실패하지 않는다(프레임)
3. 명료성은 선택적이고,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
4. 이해는 자라고, 아는 만큼 책임진다
5. 지금의 책임에는 언제나 충분히 분명하다

> **이사야 55:10-11**
>
>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명료성 논증의 중심(프레임)
>
> 10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11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 **마태복음 13:10-13**

10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11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12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13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13:18-23

제자들도 비유 설명이 필요했다. 신자 안의 이해 정도 차이(프레임)

18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19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 가에 뿌려진
자요 20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21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22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23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고린도후서 4:3-4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오웬)

3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4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누가복음 12:47-48

알고도 행하지 않은 종이 더 큰 책임을 진다(프레임)

47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48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 프레임 명료성이 듦(신앙고백서 1.8은 5:39를 '모든 성도에게 주신 명령'으로 듦). 성경을 연구하고도 예수께 오지 않음

[39]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40]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현재의 책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항상 충분히 명료하다" — 프레임 / "빛은 눈이 아니다." — 오웬(우리말 번역)

📜 9. 말씀은 네 입과 마음에 가까이 있다 (프레임 29장 성경의 명료성)

프레임은 명료성을 하나님의 '임재'로 마무리합니다. 신명기 30:11-14에서 하나님은 이 명령이 어렵지도 멀지도 않다고, 하늘이나 바다 건너가 아니라 네 입과 마음에 있다고 하십니다. 이 말은 먼저 문자 그대로 사실이었습니다. 율법책은 언약궤 곁에 두어졌고, 칠 년마다 온 백성 앞에서 낭독되었으며, 부모는 자녀에게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가랴"라는 질문 밑에는 엄청난 노력 없이는 말씀을 알 수 없다는 가정이 깔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직접 부정하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이 본문을 그리스도께 적용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셨고 살아나셨으니, 가까이 있는 말씀은 곧 복음입니다. 그래서 명료성은 결국 은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서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알아듣습니다.

1. 말씀은 멀지 않고 입과 마음에 있다
2. 율법책은 낭독되고 가르쳐지는 책이었다
3. '엄청난 노력이 있어야'라는 가정을 하나님이 부정하신다
4. 바울: 가까운 말씀은 곧 복음 속 그리스도
5. 명료성은 학력이 아니라 은혜의 문제

11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2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13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14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신명기 31:9-13

율법책을 맡기고 칠 년마다 온 백성 앞에서 낭독하라. 문자 그대로 가까운 말씀

9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10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칠 년
끝 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11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12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네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13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신명기 6:6-9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라. 일상 속의 말씀

6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로마서 10:5-9

바울이 신명기 30장을 그리스도와 복음에 적용함

5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것이요 [7]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8]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9]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신명기 30:15-20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니 백성이 말씀을 행할 수 있다

[15]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16]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17]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18]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19]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20]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여기서 말씀의 명료성은 다름 아닌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임재이다." — 프레임

🗣️ **다섯 목소리**

책	이 편의 질문에 대한 답 (한두 문장)	특별히 강조하는 것	비워 둔 것
신앙고백서 1장	성경은 구원의 길을 아는 데 가장 필요하다. 구원에 필요한 것은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보통의 수단을 바르게 쓰면 충분히 이해한다.	정직한 단서(“모든 것이 똑같이 쉽지는 않다”), 범위(“구원에 필요한 것”), 조건(“보통의 수단을 바르게”)	왜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듣는지, '보통의 수단'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짧게만 말함
프레임 『성경론』	성경 없이는 그리스도도 없으니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그리고 성경은 각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져야 할 책임을 다하기에 언제나 충분히 분명하다.	언약은 말로 맺어진 관계, 포괄성, 선택적 명료성, 아는 만큼의 책임, 말씀 속 그리스도의 임재	“이전 방식들은 그쳤다”(1.1)는 이 장들에서 따로 풀지 않음
오웬 『논고』 4장	성경은 스스로 드러나는 빛이라 누구 손으로 전해지든 읽는 사람에게 자기를 드러낸다. 못 보는 것은 빛이 아니라 눈의 문제다.	빛은 증인이 필요 없다, 교회는 빛을 드는 기둥, 불신의 원인은 눈멂	4장의 주제는 '신적 기원'을 아는 길이라 명료성의 범위나 어려운 구절은 직접 다루지 않음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	이 편의 재료에 없음 — 신앙고백서와 프레임이 메운다	—	필요성·명료성을 이 책에서 따로 다루는지는 확인하지 않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	이 편의 재료에 없음 — 신앙고백서와 프레임이 메운다	—	바빙크도 성경의 속성(필요성·명료성 등)을 다룬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 편에서는 본문을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인용하지 않음

(보통의 수단을 바르게)를 정합니다.

- 프레임은 그 선 안을 채웁니다. 왜 필요한지(언약과 복음은 말로 온다), 어디까지 닿는지(삶 전체), 왜 사람마다 다르게 알아듣는지(하나님의 주권적 소통과 성령), 그래서 무엇이 따르는지(아는 만큼의 책임)를 풀어 줍니다.
- 오웬은 그림을 줍니다. 성경은 스스로 비치는 빛이고 교회는 그 빛을 드는 기둥이라는 그림은, 신앙고백서가 증거 구절로 든 시편 119:105, 130을 비유로 펼친 것입니다.
- 못 알아듣는 이유에 대해 오웬은 사람 쪽의 눈멂(선입견, 욕망, 사탄)을, 프레임은 하나님 쪽의 주권적 뜻을 앞세웁니다. 둘 다 “문제는 말씀 쪽에 있지 않다”는 데서 만납니다.
- 워필드와 바빙크는 이 편에 나오지 않습니다. 대본에서 억지로 끼워 넣지 말고 영감·권위 편에서 다시 등장시키는 것이 정직합니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영감
하나님이 성경 저자들을 감동하셔서 그들이 쓴 글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신 일. (시리즈 공통)

명료성
구원에 필요한 내용을 성경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보통의 수단으로 알아들을 수 있게 분명히 말한다는 성질. (시리즈 공통)

충족성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구원과 믿음과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다 담겨 있어서 더할 것이 없다는 성질. (시리즈 공통)

자증성

성령의 내적 증거
성령께서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과 함께 우리 마음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주시는 일. (시리즈 공통)

필요성
성경이 없으면 구원의 길을 알 수도,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을 수도 없어서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꼭 있어야 한다는 성질.

포괄성
성경이 신앙생활의 일부가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과 상황에 닿는다는 성질(프레임의 용어).

자연의 빛
양심과 이성처럼 하나님이 모든 사람 안에 심어 두신 기본적인 하나님 인식과 도덕 감각.

보통의 수단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누구나 쓸 수 있는 평범한 통로. 성경 읽기, 설교와 교회의 가르침, 묻기, 기도, 성령의 도우심 등.

언약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자기 백성과 말씀으로 맺으시는 관계.

💬 청년의 삶으로

✅ 이 편의 결론

- 자연은 하나님을 보여 주지만 구원의 길은 기록된 말씀만 알려 준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하다.
- 언약과 복음은 말로 오기에 성경 없이는 그리스도도 없고, 그 말씀은 삶 전체에 닿는다.
- 성경의 모든 구절이 똑같이 쉽지는 않지만, 구원에 필요한 것은 배운 사람이든

- 성경은 스스로 비치는 빛이다. 못 알아듣는 문제는 말씀이 아니라 눈에 있고,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 명료성은 학력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문제다. 말씀이 가까운 것은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오셨기 때문이다.

📚 이 편의 책별 정리 노트

- 신앙고백서 · 1장 성경에 관하여 (10절, 1647 영문)
- 프레임 · 성경의 필요성
- 프레임 · 성경의 명료성
- 프레임 · 성경의 포괄성
- 오웬 · 4장 성경 안에 있는 신적 기원의 증거 · 자증하는 빛과 능력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B. B.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새물결플러스)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